

■ S-173 ■

2년 이상 생존 중인 담낭 소세포암 환자 : 증례 보고 1예

¹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전민아¹, 박선진¹, 오치혁¹, 동석호¹

서론: 담낭암은 흔하지 않은 소화기계 암으로 국내에서는 서구에 비하여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남자보다 여자에 흔하고 60, 70대에서 호발한다. 최근 발표된 한국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25,343건의 암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5283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여 전체 종양 중 9번째, 소화관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5, 6번째 빈도를 보인다. 담낭암의 가장 흔한 조직학적 형태는 선암이고, 담낭의 소세포암은 전체 담낭암의 5%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드문 악성종양으로 진단 당시 조기 원격전이가 많아 예후가 불량하며 중앙전체생존기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고 1년 생존률이 21%, 5년 생존률은 0%로 알려져 있다. 1981년 처음 보고된 이후 세계적으로도 문헌보고가 100건 미만으로 많지 않으며 국내보고 사례는 드물다. 본 저자들은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69세 남자가 CT에서 담낭암이 의심되었고 조직생검에서 담낭 소세포암으로 확진된 이후 2년동안 치료 유지 중인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당뇨 이외 특이병력 없는 69세 남자가 내원 3주전부터 발생한 복통, 식욕부진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10일 전 타 병원에서 위내시경 시행하였으나 원인 병소를 찾을 수 없었다. 내원 당시 혈압 146/80 mmHg, 맥박 93 회/분, 호흡 20 회/분, 체온 36.0℃ 이었고 신체 검사 시 간비대 있었으며 우상복부에 압통이 있었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담낭 저부에 조영 증강되는 9.6×4.5 cm의 거대한 종괴 및 천공, 황색육아종성 담낭염 소견 보여 담낭암이 의심되었다. 확진 위해 초음파 유도하 생검 시행하였고 조직검사결과 소세포암 진단되었다. 다발성 전이로 혈액종양내과에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1년 6개월 시행하였고 방사선치료 및 보존치료 중으로 진단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도 생존 중에 있다.

■ S-174 ■

척추로 전이된 편평세포 간내담관암

동아대학교병원

*오기종

담관암은 담도계의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이고 간내담관암과 간외담관암으로 분류된다. 조직학적으로 간내담관암 중 대다수는 샘암이고 그 외 매우 드물게 편평세포암, 샘편평세포암, 점액암, 인환세포암, 투명세포암, 림프상피세포암 등이 있다. 담관암에서 편평세포암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 많은 가설들이 보고되었는데 첫째, 샘암종에서 편평상피화생의 발생, 둘째, 악성 변환을 하기 전의 담도상피나 담도에서 발생한 낭종에서 편평상피화생이 일어난 경우, 셋째, 담도상피의 샘암종과 편평세포암종으로의 이중적 분화, 넷째, 미분화암종이 샘암종과 편평 세포암종으로의 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기형종의 악성 변환 등이 있다. 담관암에서 편평세포암은 샘암에 비해 병태 생리, 임상적으로 불명한 결과를 취하여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견 당시 종괴가 상당히 크고 인접 장기나 림프혈관계로 전이가 진행된 후 진단되어 근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편평세포암종 성분에서 발견되는 디옥시리보핵산 홀배수체 양상과 선암종에 비해 악성경향이 뚜렷한 편평세포암종 자체의 분자생물학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간내담관암 중 편평세포암은 전 세계적으로 2건이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샘편평세포암은 4건 보고된 바 있지만 편평세포암은 보고된 바가 없다. 저자는 간농양으로 오인된 간내담관암 환자의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이 진단된 것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59세 남자이고 발열, 오한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다. WBC 11600/μL, Hb 10.4 g/dL, PLT 198,000/μL, AST 45 IU/L, ALT 42 IU/L, ALP 1023 IU/L, 총빌리루빈 1.0 mg/dL, 직접 빌리루빈 0.6 mg/dL, 감마지티피 333 U/L, CEA 10.02 ng/mL, CA19-9 <2 U/mL, aFP 2.99 ng/mL 소견이었고 복부초음파, 복부CT 에서 다발성 간농양 의심 소견으로 2주간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복부초음파 추적 검사에서 간농양 의심부위 호전되는 소견 없고 간내담관암 의심 하에 간 MRI 촬영하였다. 복부 MRI에서 간내담관암 강력히 의심된다는 소견 하에 조직 검사 및 PET-CT 및 전신뼈스캔 등 암평가 시행하였고 편평세포 간내담관암, 12번 흉추 전이로 진단되었다. 이에 보존적 목적으로 간의 췌기절제술 시행하였고 동결절편 조직 검사에서 역시 편평세포 간내담관암이 진단되었다. 이후 척추 전이로 인한 허리 통증, 다리저림감이 심해져서 통증 조절 위해 4차례 흉추 12번에 대한 방사선 치료 시행하였다. 이후 전신쇠약감 심한 상태로 영양 병원 전원 후 현재까지 4개월간 추적이 중지된 상태이다.